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과 보호를 위한 학부모 교육자료

안녕하십니까? 일교차가 커지는 요즘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자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및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 4법이 개정(2023.9.27.공포)됨에 따라 교육활동 보호 관련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학생, 학부모님께서는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어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1.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

####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교육부고시 제2021-26호) 제2조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5.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시행일(2024.3.28.)부터 악성민원,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범죄행위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확대 예정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유형	사례
상해/폭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원의 신체를 밀치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잡아서 흔드는 경우</li> <li>큰소리로 폭언을 하여 피해교원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하고, 우울병 등으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게 한 경우</li> </ul>
협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험한 물건을 교원의 목에 겨누면서 찌를 것처럼 위협한 경우</li> <li>피해교원에게 학교폭력을 은폐한 사실을 기자와 교육청에 말하겠다며 위협한 경우</li> </ul>
명예훼손/모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부모가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특정교원의 외모를 지칭하며 경멸적으로 말하는 경우</li> <li>다른 학부모들에게 '담임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이야기 하는 경우</li> </ul>
손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물질을 담임교사 차량의 에어컨 배기구에 부어 손상을 입힌 경우</li> <li>담임교체를 요구하며 교실에 있는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 경우</li> </ul>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성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부모가 담임교사와 상담 시 허리, 종아리, 허벅지 등 일반인의 시각에서 접촉이 꺼려지는 부위를 고의로 접촉하는 경우</li> <li>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교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li> </ul>
불법정보 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에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폭행, 학대하고, 이를 따지는 학부모에게 욕설과 협박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교사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게시한 경우</li> <li>담임교사에게 불만을 품고, 새벽시간을 포함한 수 일 동안 "죄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교사의) 자손들이 장래 불행할 것이다"라는 등의 저주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수 십여 차례 보내 교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경우</li> </ul>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의 아버지가 아들을 괴롭힌 학생을 혼내준다고, 수업 중인 교실로 들어가 관련 학생들을 교실 밖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게 하고 이를 만류하는 교사를 협박하여 수업 진행을 방해한 경우</li> </ul>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에서 자녀 상담을 하던 학부모가 성적인 비유와 농담을 반복적으로 하여 담임교사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li> </ul>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육교사에게 '수업시간에 야외 체육활동을 하지 말고 자습을 시키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li> </ul>

<p>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 평가에 관하여 교사에게 '시험범위를 줄이라', '시험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내냐? 쉽게 내라'라며 반복적으로 요구 간섭하는 경우</li> <li>• 교사를 무시하며 학생들에게 교사의 말을 듣지 말라고 종용하는 경우와 같이 교원지위법 및 교육부장관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유형일지라도 학교장이 교권존중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다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li> </ul> <p>*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제1항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p>
<p>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p>	

## 2.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

### 가.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교원지위법에 의해 ①학교에서의 봉사, ②사회봉사, ③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④출석정지, ⑤학급교체, ⑥전학, ⑦퇴학처분이 가능합니다.

※ **2024.3.28.부터** 특별교육 이수 대상 침해학생을 출석정지 이상으로 확대, 전학조치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전에 시행

### 나.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 현재 : 형사 고소·고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통지, 과태료 부과
-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2024.3.28.부터** 조치사항 확대  
(예) 제26조(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2.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제35조(과태료) 정당한 사유없이 조치사항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 3.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원의 교육에 대한 사기와 열의를 떨어뜨리고, 학생들에게 쏟아야 할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합니다. 선량한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①학습권 침해, ②인성에 위협, ③안전에 위협** 따라서 교사, 학생, 학부모가 협력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 「교육기본법」 제13조제3항 :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 규정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 : 보호자에 의한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침해행위를 금지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학교의 학생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

## 4.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 ☑ 가정교육의 중요성 인식하기  
가정교육은 학교교육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치며, 가정교육이 튼튼하지 못하면 학교교육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학교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성교육이나 생활습관 개선, 관계성 교육 등은 한계가 있으므로 가정교육을 통해 내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교육권은 서로 존중하는 상관계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전인적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 ☑ 교원과 학부모 간의 신뢰와 존중으로 역할 연대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모두의 목표는 자녀(학생)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함께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5. 학부모의 정당한 교육활동 참여

- 1) 학교알리미, 학부모회 참여, 학교홈페이지 방문,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자료 열람, 공개수업 참관, 상담주간 등과 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관여하여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학부모와 학교가 협력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 2) **정당한 민원 제기 방법**
  - 학교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학교 유선 또는 홈페이지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신청」을 통해 사전 약속을 잡고 방문합니다.
  - 비상상황을 제외하고 업무시간을 준수합니다.
  - 교원의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률에 따라 보호합니다.
  - 교원의 수업 및 학생지도, 임장 등을 우선시 하고, 학부모의 민원제기로 인해 수업 중인 교사와 학생의 교육활동에 방해가 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원 처리에 일정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인식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자녀만을 위한 요청이 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 교육활동 침해 예방 동영상 자료: 홈페이지-가정통신

2023년 10월 27일

진 안 공 업 고 등 학 교 장 (직인생략)